

소비활동 10% 위축땐 中企 일자리 2.8만개 잃는다

코로나19, 메르스와 비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중견사는 3100개 줄어들 듯
중기 실질총생산은 17.6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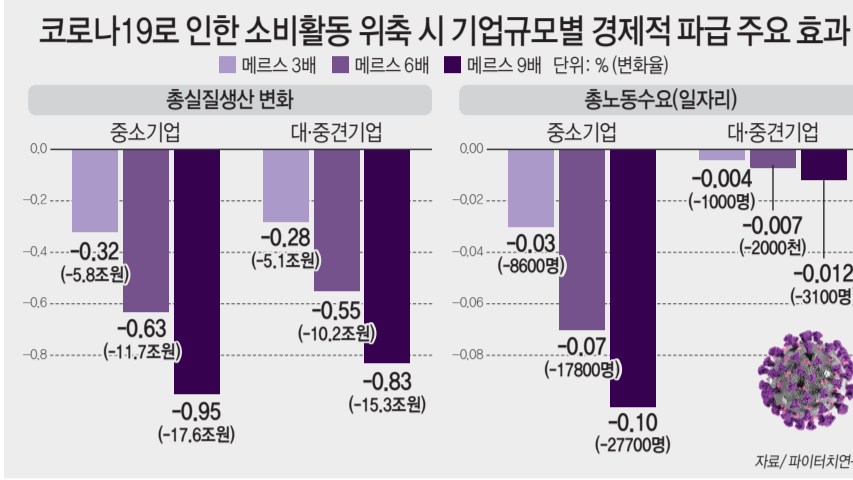
화폐 구매량 0.6% 하락 전망
“감염차단, 통화정책 시행 절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될 경우 약 3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 위축→실질총생산 감소→총노동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대·중견기업에서 3100개, 중소기업에서 2만7700개 정도가 줄어들면서다.

실질총생산은 대·중견기업에서 15조3000억원, 중소기업에서 17조6000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 확진자 치료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침체된 기업경



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주52시간제 보완 등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6일 펴낸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과거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보다 소비활동이 3배 위축(-3.36%), 6배 위축(-6.72%), 9배 위축(-10.08%)을 가정, 경제적 파급 결과를 예측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메르스의 경우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2015년 7월9일 당시 누적 확진자는 186

명, 사망자는 36명이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지난3월10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7513명, 사망자 54명이었다. 확진자만 놓고보면 코로나19가 메르스보다 약 40배 더 많은 셈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연간 소비활동 위축이 메르스 때보다 3배일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총생산은 5조8000억원(0.32%), 일자리는 8600개(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견기업의 실질총생산도 5조1000억원(0.28%), 일자리는 1000개

(0.004%)씩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악영향이 더욱 커져 소비활동 위축 정도가 9배(약 -10%)까지 늘어나면 실질총생산과 일자리의 경우 중소기업은 17조6000억원(0.95%), 2만7700개(0.1%)가, 대·중견기업은 15조3000억원(0.83%), 3100개(0.012%)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이번 연구에선 화폐와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분석모형에 반영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행위도 구체화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되면 화폐 구매량과 신용카드 구매량이 0.6%, 0.04%씩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연구원은 과거 메르스보다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확산 차단 및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 동시 시행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 강구 등을 주문했다.

라 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감염 확산 차단과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법을 전시 상황에 준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과 추경을 적극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준금리도 낮춰 재정정책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역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영세한 업종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도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참여자 모집

중소벤처부, 내달 20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4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600명 내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분야 등 10개 부처에서 추천한 16개의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창업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100명을 선정하는 일반분야(업종 무관)는 이미 신청·접수를 끝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업아이템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대표자와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에 따라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발표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로나19 정책자금 보름후 물꼬 트일 것”

박영선 중기부장관, 간담회 참석
“신속처리 위해 금융위 등과 협의
이번주부터 시중은행서 위탁보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에 대해 “보름 정도 지나면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 처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위탁 보증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위탁 보증업무를 시작하면 하루에 처리 가능한 건수가 기존 2500건에서 7000건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신청된 건수만 이미 10만건이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에 참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소되려면 보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는 이날 박장관에게 ▲대구·경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속 및 직접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분쟁 발생시 대응비용 지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피해 중소기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중소

기업 판로 지원 ▲산업현장에 대한 마스크 우선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종합지원대책방안 수립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아직 정부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지원책 마련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에드락애드버테인먼트, 10억 투자유치

‘운전면허플러스’ 앱 서비스

운전면허시험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인 ‘운전면허플러스’를 서비스하는 에드락애드버테인먼트는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에드락애드버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운전면허플러스’는 스마트폰 운전면허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서비스로,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포함한 누적 다운로드 수도 최근 400만건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에만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큰 성장률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투자에 앞서 포스코

기술투자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2019년 중소기업청 창업프로그램인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기술력과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회사는 이번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투자는 단순 자금 유치의 성격을 넘어, 기업 가치 성장을 위한 강력하고도 전략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번 투자는 운전면허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과 이에 기반한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경영진의 강한 추진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향후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자이글, 산소 LED마스크 특허 2개 취득

자이글은 산소LED마스크와 관련해 일반 LED마스크의 문제점을 개선한 2가지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취득한 특허는 ‘눈마스크가 구비되는 산소공급 LED 피부마스크’와 ‘산소공급 눈마스크가 구비되는 LED 피부 마스크’다.

LED마스크가 대중화되면서 지속적

으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가 ‘열기’다. 강한 열기로 인해 화상 등 피부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이글은 LED 광원을 피부에 조사하면서도 산소 공급을 통해 열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주름 발생 억제, 피부 탄력, 콜라겐 재생, 모세혈관 수축 등 주요 L

ED마스크 효능을 얻으면서도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

효율적인 산소공급에 대한 기술력도 신규 특허 취득을 통해 증명했다. 일반적인 산소발생 제품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 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소 호흡용으로 제작돼 피부나 얼굴에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이글은 피부미용을 위한 산소공급을 얼굴피부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소가 LED마스크 외부로 유실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김승호 기자